

삼성·LG, 초고가제품 정면승부... 미래 TV시장 LED 이원화

삼성전자, 내년 미니LED TV 예정 부품 공급사 선정 마무리 단계 LG전자 '더 월' 가정용 출시 전망 광저우 공장 가동으로 가격 낮춰

TV 시장도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가 '포스트 LCD'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중으로 미니LED TV를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삼성물산과 함께 '퀀텀 미니LED' 상표권을 출하했으며, 베트남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부품 공급사 선정도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

미니 LED TV는 작은 LED 소자로 만든 TV다. LCD 패널보다 더 선명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고, 내구성도 우수하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니 LED TV는 4K 해상도에 100만 대 1 명암비, 55인치에서 85인치까지 4종으로 출시한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TV 시장에서 독



삼성전자는 더 월 럭셔리로 가정용 마이크로 LED 판매를 시작한다. /삼성전자



지난 13일 LG디스플레이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롤러블 OLED 패널을 살펴보고 있다. /LG디스플레이

보적이던 OLED TV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OLED TV보다 내구성이 높고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마이크로 LED TV '더 월'도 가정용으로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올 초 'CES 2020'에서 하반기 출시를 약속한 상황, 한 달 안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더 월은 LG전자 롤러블 TV인 시그

니처 올레드 R과 맞붙게 된다. 가격이 비슷한 1억 원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양사가 오랜만에 초고가 제품으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된 셈이다.

차세대 TV 시장도 LED와 OLED로 이원화됐다. 종전까지는 OLED와 퀀텀닷 OLED, QNED 등 자발광 소자 개발 경쟁이 중심이었지만, 미니 LED와 마이크로 LED까지 상용화되면 2가지 방식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은 OLED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LG디스플레이가 오랜 동안 OLED를 연구해온 덕분에 번인(Burn-in) 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고, 최근 광저우 공장 가동 등으로 가격도 떨어뜨리고 있다.

폭팩터도 다변화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가 만든 OLED 패널을 이용해 롤러블 TV에 이어 투명 TV가 출시됐으며, 위로 말려 올라가는 롤러블 TV

등 다양한 제품들이 이미 개발돼 시장 진출 시기를 저울질 중으로 전해진다.

반면 기술적으로는 LED 방식이 OLED보다 한수 위에 있는 만큼, 머지않아 OLED를 대체할 프리미엄 TV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LG디스플레이도 미니 LED TV를 개발 중이라는 전언이다.

문제는 미니 LED TV의 공정 문제다. LED 소자를 심는 작업이 여전히 어려워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OLED TV가 꾸준히 가격을 낮추는 것과 달리 LED TV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가.

업계 관계자는 "OLED는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어서 프리미엄 TV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가진 제품에 활용될 전망"이라며 "미니 LED가 화질이나 수명 면에서는 더 우수할 수 있겠지만, 전사 공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격 문제로 시장에 자리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포스코ICT, 스마트한 산업현장 이끈다

안전관리 활동 표준화... 패키지형태 짧은 기간 합리적 비용 시스템 구축

포스코ICT가 산업현장의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한 곳에서 통합해 수행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포스코ICT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포스코ICT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제조·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모든 작업자와 경영진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공정안전관리 ▲작업허가 ▲설비관리 및 점검 ▲안전교육 ▲협력업체관리 등과 같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용된 현장에서 작업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장내에 산재해 있던 안전관리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했다. 또 계획수입에서부터 실행 및 점검, 개선조치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다른 업무 시스템들과도 연계함으로써 전사차원의 통합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현장에서 검증된 안전관리 활

동들을 표준화해 패키지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모듈형 컴포넌트로 구성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기능들만 맞춤형으로 적용 가능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도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비스포크' 디자인·대중성 '두토끼'

국내 냉장고 판매 매출 65% 차지

삼성전자 주방가전이 비스포크를 달고 날개를 달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0월까지 비스포크 냉장고가 국내 냉장고 판매 매출 중 65%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스포크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가전을 나답게'라는 콘셉트로 처음 비스포크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이다. ▲가족 구성원 수나 인테리어에 따라 1·2·3·4도어의 다양한 타입을 이어 붙여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모듈러 타입 ▲취향에 따라 원하는 컬러와 소재로 갈아 끼울 수 있는 패널 ▲별도의 공사 없이도 한국 주방 가구에 딱 들어맞는 '키친핏'으로 소비자들을 충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키친핏은 주방 가구와 싱크대

표준 깊이인 700mm를 기준으로 해 냉장고 전면이 튀어나오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한다. 아울러 비스포크 디자인을 적용한 식기세척기와 인덕션, 직화오븐과 전자레인지 등 제품들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매출액 기준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년 대비 판매량이 식기세척기 280%, 인덕션 130%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비스포크 직화오븐도 전체 판매 중 70%를 차지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비스포크 큐브 냉장고는 이달 초 출시된 후 빠르게 인기를 높이는 상황이다. '스페이스 프리 냉장고'라는 콘셉트로 집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5가지 색상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김재용 기자

지스타컵 카트라이더 시청자 4700명 돌파

>> 1면 '지스타 2020 폐막'서 계속

온라인을 통해 매년 지스타가 열리는 벅스코 현장에서 공간적 제약으로 포용할 수 없던 관람객도 손쉽게 지스타를 즐길 수 있게 된 셈이다.

지스타 조직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파편적으로 나눠진 정보를 한군데 모아서 볼 수 있어 좋다는 평이 많았다"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내용도 집중해서 모든 소식을 접하기 좋은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인디게임과 e스포츠 '지스타컵', 참가사 게임소개 코너가 신선하다는 평이 많았다.

◆첫 '지스타컵' 부산 e스포츠 경기장

서... '카트라이더' 경기 시청자수 4700명 돌파

지스타컵은 20일, 21일 양일간 '부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는 지스타조직위가 주최 및 주관하는 첫 번째 e스포츠 대회다. 대회 종목으로는 넥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2K '2K 21', KT게임박스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등이 열렸다. 총 상금은 1550만 원이다.

특히 지스타컵 2020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부문은 지스타TV 동시 시청자 4700명을 돌파하며 눈길을 끌었다. 파이널 라운드의 최종 결승전에서는 김홍승 선수가 우승을 차지해 1위 상금으

로 400만 원을 획득했다.

◆지스타2020, 주요 신작은?

이번 지스타에서는 주요 참가사들의 신작도 지스타TV로 공개됐다. 비즈니스 매칭 또한 비대면 화상채팅으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이뤄졌다.

메인 스폰서인 위메이드는 개막일인 19일 오후 지스타TV를 통해 모바일 MORPG '미르4'를 오는 25일 정식 출시하겠다고 공개했다. 이날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미르4로 국내 매출 순위 1위를 노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넥스 또한 21일 신작 '커츠펠'과 '코노스바 모바일'을 소개했고, 스마일게이트 또한 모바일 신작 '티트야니'를 공개했다. 카카오킴즈 또한 '엘리온' 게임 소개 및 콘텐츠를 공개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 올레드 갤러리 TV, 올해의 발명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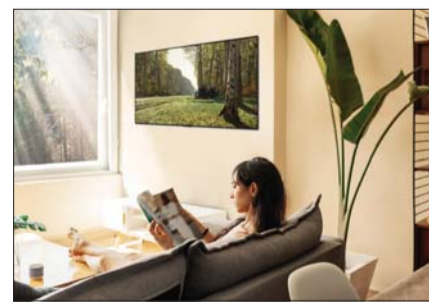
美 타임지 "진정한 밀착형 TV"

미국 타임지가 LG 올레드 갤러리 TV를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치켜세웠다.

LG전자는 타임지 선정 '2020년 최고 발명품 100'에 올레드 갤러리 TV(모델명 GX)가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최고발명품 100은 매년 타임지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하는 행사다. 엔터테인먼트와 연결성, 인공지능과 의료 등 24개 분야 혁신제품 100종을 선정한다.

갤러리 TV는 엔터테인먼트 부문 '진정한 밀착형 TV'에 뽑혔다. 또 깊은 명암비를 구현해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는 평가도 받았



LG 올레드 갤러리 TV. /LG전자

다. 또 구글어시스턴트와 아마존 알렉사 등 다양한 인공지능 플랫폼과 연동된다는 호환성도 장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2년 연속 타임지 최고 발명품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시그니처 올레드 8K가 엔터테인먼트 부문 '미래의 TV'에 선정된 바 있다. /김재용 기자